

영광굴비의 변신... 상품 다양화로 글로벌 시장 도전

영광 법성포 ㈜연우어업 정해란 대표

민트·황칠 이용 새 시도 '차별화 전략'
대형 유통업체 입점...매출 50억 목표
유튜브·틱톡 활용한 SNS 마케팅 선도
"수출 확대해 '건강한 굴비' 알리고파"



정해란 ㈜연우어업 대표.

며 햇섭(HACCP) 인증을 획득하며 제품의 위생과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연우어업의 굴비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좋은 품질을 넘어 정 대표의 '발상의 전환' 덕분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정 대표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간편식 굴비, 경조사 답례 상품, 프리미엄 굴비 등 상품군 다양화를 시작했다.

굴비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민트를 활용한 짬 굴비를 개발하고, 가시를 제거한 순살 제품을 만들어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했으며 내장 등 속이 아예 빠진 속 없는 굴비도 개발했다. 여기에 황칠을 가미한 건강 굴비는 현재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포장 디자인까지 바꾸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전체 판매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민트굴비는 굴비를 짤 때, 민트를 갈아 짜내 굴비 특유의 비린내는 줄고, 은은한 허브향이 감돌아 풍미가 더욱 올라간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영상 편집을 독학하며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연우굴비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 굴비 비빔밥, 굴비라면, 치즈가 든 굴비 안주 등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요리법도 소개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굴비가 전통 음식이라는 인식을 넘어, 젊고 감각적인 식문화의 일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곧 서울서 열릴 요리 대회에 직접 참가할 예정이다. 요즘은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요리가 주목받고



㈜연우어업 직판매장 전경.

㈜연우어업 제품

있어 굴비를 활용한 한입 요리를 준비 중이다. 굴비를 가지고 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에 망설임이 없는 정 대표가 매년 잊지 않고 하는 일도 있다. 바로 5년째 이어온 지역 어르신 도시락 봉사다. 그는 지역 봉사단체 여성회 소속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매년 300여명분의 반찬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 대표는 "먹거리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으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도시락 봉사활동을 5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도 지역 기업인으로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 대표의 목표는 일본, 호주 등 수출 판로 확대다. 지난해 미국으로 첫 수출을 경험한 그는 올해 수출량을 더욱 늘려 ㈜연우어업만의 건강한 굴비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정 대표는 "굴비는 예로부터 귀한 음식이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전통을 지키되, 현대에 맞춰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런 정성을 담아, ㈜연우어업만의 굴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연우어업은 지난 2001년 연우굴비로 설립, 2022년 어업회사법인 연우주식회사로 변경했다. HACCP, FDA 승인, 식품안전경영 및 박하를 이용한 관련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경총 "기업 규제 완화' 대선공약 반영해야"

신산업 분야 등 4개 분야 제시

광주경총은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산업 분야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경총은 8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4개 분야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과 안전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 주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지 및 설비투자 관련에선 공장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 도입 과정에서 복잡하고 중첩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기업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은행,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ESG 활동·콘텐츠 제작 참여

광주은행은 지난 7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2008년 시작된 이후 매년 지역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대표적인 대외활동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주·전남 지역 대학에서 30명을 선발해 활동을 활발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광주은행의 ESG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브랜드 홍보, MZ세대와의 소통,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젊은 세대의 감각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 광주은행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은행은 지난 7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다. 또한,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 및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창의성과 협업

역량을 갖춘 대학생 홍보대사들이 광주은행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광주은행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개인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시장의 공포' 투자자에게 절호의 기회다

자산시장을 지배하는 두 단어는 탐욕과 공포다. 탐욕과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VIX) 지수다.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매일 발표하는 이 지수는 향후 30일간의 시장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주로 S&P500지수 옵션의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되며 투자자들의 공포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보는 방법도 간단하다. 보통 빅스 지수가 20 이하일 경우에는 시장이 안정적,

또는 탐욕적이라고 평가하고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포심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20과 30 사이일 때는 중립으로 본다. 빅스 지수가 극단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이때는 우량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빅스 지수가 매우 낮은 경우는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어서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야 할 시점으로 해석

한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글로벌 자산시장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빅스 지수가 역사적 최고치인 85.47까지 치솟았는데 대담한 일부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가 우량주를 대거 매수했고 특히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을 비롯한 우량 기술주를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었다. 상당수 개미 투자자들 역시 공포를 사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다른 보조지표와 마찬가지로 빅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스지수역시만능열쇠가 아니다. 시장의단기적인방향성 예측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거시지표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함께 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분명한 것은 시장의 공포는 투자자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빅스 지수는 이 공포를 수치화한 훌륭한 도구라는 것이다. 시장이 어느 정도의 공포 수준에 있는지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만해도

빅스 지수는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빅스 지수를 예찬하거나 맹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의 공포가 투자자에게 주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될 것이다. 공포가 기회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공포를 이기는 투자자가 많다면 빅스 지수는 늘 하락해서 낙관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투자자가 탐욕스러워 할 때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라는 워런 버핏의 이 말을 기억하자.